

# '기업 규제 대명사' 영암 대불산단 전봇대 다시 뽑힌다

### 대아산업2공장~문성간 2.59km 구간 지중화 사업 착수 배전·통신 선로 묻고 전신주 111개 철거...2025년 마무리

지난 2000년대 중반 이후 '기업 규제 대명사'로 불렸던 영암 대불산단 전봇대가 다시 뽑힌다. 영암군은 대불산단 입주기업의 오랜 숙원인 배전·통신선로 지중화사업을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불산단 지중화 1차사업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대형선박 블록 운송환경 개선과 대형사고 예방 등을 위해 기존의 배전·통신 선로를 땅에 묻고 전신주 111개를 철거한다. 구간은 1구간인 대아산업2공장에서 7구간인 문성까지 총 2.59km이다. 이를 위해 영암군과 한전, KT 등 6개 통신사업자는 지난해 3월 협약을 체결했다. 영암군은 1차 지중화사업을 2025년 8월까지 마무리하고 공사기간 중 통행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임시포장과 복구공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대불산단 지중화사업 1차는 지난 2022년 영암군의 요청과 한전의 심의로 국비 22억원 지원이 결정됐다.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지자체 협력 방식에서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방식으로 변경해 산자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고, 영암군은 총사업비 112억4000만원을 확보했다. 대불산단 지중화는 2006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불산단 방문 간담회 이후 규제개혁의 대표적인 사례로 '대불산단 전봇대'가 거론되면서 많은 이슈를 낳았다. 8 하지만 지자체 재원 부담이 커 사업 진행은 더뎠고 2016년 이후에는 사실상 사업이 중단됐다. 최근 대형선박 블록 운반 차량이 전봇대 변전소와 충돌하는 사고가 대형 소송으로 이어지며 다시 주목받았다. 영암군 관계자는 "안전사고 없이 지중화사업을 완료해 선박운송 환경개선, 대형사고 예방, 산단 경제 활성화 등을 이뤄내겠다"면서 "주민의 넓은 이해와 협조 속에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영암군이 대불산단 입주기업의 오랜 숙원인 배전·통신선로 지중화사업에 착수했다. 영암 대불산단 전경.

<영암군 제공>

## 영광군 백수읍 하사3리 마을 60가구 LPG 공급망 구축

### 7억8000만원 들여 연내 설치

영광군이 도시가스 공급망이 닿지 않는 농촌 마을 주민들의 연료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해 액화석유가스(LPG) 공급망을 설치한다. 영광군은 '2024년 LPG배관망 구축사업'에 선정된 백수읍 하사3리 마을에 도비 2억3000만원·군비 4억7000만원·자부담 7800만원 등 총 7억8000만원을 들여 LPG 집단 공급 체계를 구축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60여 가구에 LPG를 사용할 수 있도록

소형저장탱크를 비롯해 배관망과 옥내배관을 설치하고 가스보일러 등을 지원한다. 기존에 LPG 용기를 개별 배송 공급하던 방식과 달리 LPG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통해 LPG를 집단 공급함으로써 30~40%의 연료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도시가스 수준의 편리성을 제공함으로써 농촌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영광군은 그동안 군민들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해 2015년 25억원을 들여 백수읍 하사리 평산

마을 54가구를 대상으로 LPG배관망 구축 사업을 처음으로 했다. 이어 2021년 흥농읍 상봉마을, 2022년 백수읍 한성마을, 2023년 군남면 장고마을까지 총 4개 마을, 256가구에 LPG를 공급했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LPG배관망 구축 사업은 주민들의 에너지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에너지 기반 시설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군민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 신안 1004섬 분재정원 '명자나무 분재 특별전'

### 내달 14일까지 100여점 전시

신안군이 다음 달 14일까지 1004섬 분재정원에서 명자나무 분재 특별전을 개최한다. 주 관람로와 유리온실에서 명자나무 분재 100여 점을 선보인다. 명자나무는 장미과에 속하는 낙엽관목으로 꽃은 단성으로 짧은 가지 끝에 1개 또는 여러 개가 달린다. 4~5월에 분홍색·적색·담백색 등으로 다양하게 핀다. 과실은 길이 10cm 정도의 타원형으

로 청황색이다. 꽃말은 조속과 겸손, 열정이다. 예기씨나무 또는 아가씨나무라고도 불린다. 이번 전시는 지역주민과 방문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해 지역 문화 활성화와 분재 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1004섬 분재정원은 명자나무 분재 특별전이 끝난 뒤 4월 말에 철쭉분재 특별전을 연다. 신안군 관계자는 "매일 다양한 분재 특별전을 열어 분재 문화의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 해남군 '지속가능발전' 주민참여단 발족

### 주민 100명 참여... '포용 사회' 실현 등 17개 전략 실천 다짐



지난 22일 명현관 해남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남군 지속가능발전 주민참여단 발대식이 열렸다.

해남군이 최근 주민 100명과 함께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 주민참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지속가능발전 주민참여단'은 해남군이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해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목표, 전략, 지표 등을 함께 수립하게 된다. 군은 올해 초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 사회' 등 4개 주요 전략 17개 목표로 이뤄진 지속가능발전 실천 다짐을 선포했다. 주민참여단은 경제·산업과 환경·안전, 사회·문화, 자치·협치 등 4개 분야로 구성된다. 이들은 퍼실리테이터(회의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돕는 촉진자),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토론과 지역사회 의견 수렴을 거쳐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이행계획을 수립하는데도 참여한다. 이번 발대식에선 위촉장 수여와 함께 지속가능발전목표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참여단의 역할에 대한 교육도 실시됐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는 전세계적 협력과제로서 땅끝 해남에서 선도적 발전 전략을 수립해 지역의 미래 발전에서도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발전 개념을 정립해 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주민참여단의 다양한 의견이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자랑스러운 해남인 찾습니다...해남군 유공자 26명 선정키로

### 4월3일까지 추천·접수

해남군이 해남군민의 날을 맞아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군 발전에 크게 기여한 군정발전 유공자를 추천, 접수받는다. 수상자는 5월1일 열리는 제51회 해남군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한다. 추천 분야는 자랑스러운 해남인 1인, 군정발전 유공자 25인 내외다.

자랑스러운 해남인은 군정 각 분야에서 해남군 발전에 기여, 해남인의 긍지를 드높인 군민과 출향인사다. 군정발전 유공 추천대상은 해당 분야에서 장기간 공적을 쌓아 타의 귀감이 되는 사람 또는 기관·단체다. 지역발전과 군민복지증진 등 6개 분야로 나눠 추천을 받는다. 추천자는 군청 부서장, 읍면장 또는 유관기관·

단체장이다. 추천 기한은 4월3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총무과나 읍면 총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지역발전에 기여한 숨은 주인공들을 찾아 지역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영암군 고향사랑기금으로 소아청소년 치료 지원

영암군 소아청소년이 고향사랑기금으로 전문의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영암군은 최근 고향사랑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보건기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신설 운영'을 새로운 고향사랑기금사업으로 선정했다. 지난달부터 시행한 어르신들의 근육 손실 회복 프로그램 '영명이 기억상실 프로젝트', 4월부터 진

행될 마을어르신들의 영화관 나들이 '엄니, 영암 극장 가시게'에 이어 제3호 고향사랑기금사업이다. 영암에는 해당 분야 전문의가 없어, 소아청소년이 정밀한 진료와 치료를 받으려면 광주나 목포로 나가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영암' 정책을 시행 중인 영암군은,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세대의 건강을 돕보

기 위해 소아청소년 전문의 초빙을 결정했다. 5월부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영암군보건소에 2일, 삼호보건진료소에 3일간 상주하면서 영유아 건강검진, 소아과 진료 등을 진행한다. 군은 내년에도 이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고향사랑기금 지정기부를 시행해 재원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군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꾸준히 기획해 고향사랑기금을 알차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콘크리트 노둑길 철거로 모습을 드러낸 과거에 사용하던 노둑길.

## 신안 암태~추포도 300년 옛 노둑길 되살아나

### 콘크리트 노둑길 철거작업 진행

신안 암태도와 추포도를 연결하는 300년 역사 옛 노둑길이 모습을 점차 드러내고 있다. 신안군에 따르면 추포도 옛 노둑길은 암태도와 추포도를 건너다니기 위해 2.5km의 갯벌 위에 선조들이 직접 돌을 놓아 만든 길이다. 노둑길은 섬과 섬 사이나 섬과 육지 사이에 크고 작은 돌을 놓아 만든 징검다리를 말한다. 물이 빠지는 간조 때 징검다리기가 드러나 육지나 인근 섬을 오갈 수 있다. 옛 노둑길의 역사는 추포도에 세워진 노도비를 통해 알 수 있다. 무려 3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교통수단의 발달과 보급에 따라 옛 노둑길 위로 통행을 위한 콘크리트 노둑길이 설치됐다. 콘크리트 노둑길 설치로 해수 유통이 불량하게 변했고 갯벌의 퇴적량이 변화돼 갯벌의 유용한 자원들이 사라지고 생물다양성 훼손의 문제가 발생했다. 추포도교가 설치돼 콘크리트 노둑길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갯벌생태계의 중요성이 주목받으면서 신안군은 해수 유통을 통한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에 착수했다. 노둑길 철거를 통해 미미하던 해수 유통이 이뤄지고 선조들이 사용하던 옛 노둑길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옛 노둑길의 역사는 추포도에 세워진 노도비를 통해 알 수 있다. 무려 3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 1분기 전남 서남부 경제 조선 호조 서비스 부진

### 한국은행 목표분부 동향 모니터링

한국은행 목표분부(본부장 김태정)는 2024년 1/4분기중 전남 서남부지역 소재 기업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경제동향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전남 서남부권 경기는 제조업이 조선업을 중심으로 업황 개선을 이어간 반면, 서비스업은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내수 부진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로 업황 회복이 더딘 모습을 보였다. 소비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가계의 구매력 저하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회복이 더딘 것으로 조사됐다. 1~2월중 전남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3.3% 상승하며 전분기 대비 물가오름세가 다소 둔화됐다. 다만 농축수산물 가격의 경우 2월 상승률이 1월에 비해 높아지면서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폭도 2월에 다소 확대된 모습이다. 한편, 전남지역 수산업 생산은 김, 미역 등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최근 회복 조짐을 나타내고 있어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정 한국은행 목표분부장은 "향후 지역 경기는 제조업 생산 개선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서비스업은 물가상승률 둔화로 가계의 구매력이 개선되면서 소비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업황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